

전일동향

전일 증가와 동일한 1,420.60원에 마감

2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증가와 동일한 1,420.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8.60원 상승한 1,429.20원에 개장했다. 오전 장에서 환율은 달러 강세에 1,431.20원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 그러나 네고물량 출회 등에 환율은 상승폭을 반납하며 보험권까지 하락해 1,420.6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0.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02.8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29.20	1431.20	1420.50	1420.60	1426.60
엔화	1002.99	1008.44	989.42	990.17	-	
유로화	1622.25	1630.79	1606.41	1607.50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6	-6.45	-14.97
결제환율(수입)		-0.25	-5.62	-13.26	-26.2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무역협상 낙관론에...1,42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9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20.60) 대비 7.10원 상승한 1,424.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중 갈등 완화에 따른 강달러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 이상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높은 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하며 무역 협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중국 정부도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발언했다. 미-중 협의 가능성에 유로화 및 엔화 등 주요국 통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달러화는 0.91 상승한 99.874를 기록했다. 한편 연준 베이지북에서는 경제활동은 큰 변화가 없으나, 관세 불확실성을 강조했다. 달러 강세에 원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 실수요 저가매수세 유입도 환율 상승의 재료로 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위안화 강세 및 국내증시 외인 순매수 유입 가능성에 환율의 상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22.60 ~ 1432.00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977.4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10원 ↑
	■ 美 다우지수 : 39606.57, +419.59p(+1.0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31.0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0890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